

# 아빠와 딸의 하나 되기, '생각그림' 으로의 초대



참 이상한 책이다.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책이 되나 싶다. 여기서 '이런 것'이란 의문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집, 그러니까 아이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실이나 방바닥, 벽지에서 충분히 지겹게 보아왔던 그림들이기 때문이다.

글씨미디어 이사이자 투바이트폰트 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는 시각 디자이너 홍동원 씨(43)는 둘째 딸 승윤이(9)가 네 살 때부터 일곱 살 때까지 그린 그림을 책으로 만들었다. 물론 아이의 그림만 있는 것

은 아니다.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는 한 아이와 그 그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한 아빠, 그리고 그들의 가족(아내 성낙경 씨(37), 큰딸 슬기(11), 막내 아들 승빈(5))이 있다.

“이성표의 《그림으로 만든 시》라는 책을 승윤이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여백이 많은 책인데, 어느 날 그 책에 그림을 다 그렸다고 해서 펼쳐보니 여백을 꽉 채운 거예요.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의 낙서가 아니라 지난 3,4년간 승윤이와 나눈 이야기들이었어요. 문득 이 그림과 내가 메

모해 두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원 때 졸업논문을 쓰기 위해 읽었던 《미술과 시지각》이란 책은 좋은 참고서가 되었다. 그때는 엄청난 분량과 매끄럽지 못한 번역으로 도중에 집어던지기를 몇 번이나 한 책이지만 순수한 조형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정신병자, 선사시대의 벽화 등을 설명한 부분은 그에게 또 하나의 조형감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 책에 소개된 그림은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은 그럴듯한 그림이 아닙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런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카소의 그림이 그림이 되고 아이의 그림은 낙서가 되는지 저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도 말이죠.”

아빠가 아이에게 그림 그리기 위해 해준 물리적인 노력이라고는 고작해야 작업실에서 쓰고 남은 이면지를 무한정으로 가져다준 것밖에 없다. 그림 교육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면지를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을 그러대는 아이에게 도화지를 사 줄 엄두가 안 났던 것이다. 대신 그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승윤이가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외부의 훼방꾼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홍씨는 ▶안다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자 ▶아이들은 누구보



다도 그림을 잘 그린다 ▶아이의 그림 그리기를 재미있게 바라보자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다.

결국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각 그림'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는 것이 낙서인데 처음에는 의미 없는 끌쩍임으로 시작한 낙서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이의 생각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홍씨는 '아이의 생각이 담긴 낙서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조심스레 이야기를 건네는 것으로 아이의 그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반응하므로, 아이의 낙서에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는 낙서에 더욱 더 자신의 생각을 많이 담게 되고, 그만큼 표현력이 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베이비시터 baby-sitter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생각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돌을 두들기며 이건 피아노라고 하면 '그래 이 피아노 정말 멋있구나' 하며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렇다고 어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0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것을 동시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때 어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물론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합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각자의 아이들에게 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대답하게 하고 10명의 아이

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가르칠 때 부모에게서 요구되는 덕목은 '인내심'인 셈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은 순식간이다. 또 어른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마무리짓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견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쁜 어른들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상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을 돕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간섭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그의 교육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내가 보기에 정말 실상을 잘 모르는 소리다. 가령 아이의 학원문제만 해도 그렇다. 아내는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친구도 사귄 수 없거니와 학교진도도 못 따라간다는 현실 때문에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고(승윤이는 지금 언니를 따라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아내 성낙경 씨 역시 원칙적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유학을 보내지 않는 이상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다) 홍씨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공부에 아이에게 좋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아주 무능한 부모'가 되는 기분으로 산다. 아내 성낙경씨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이 서운하고 남편은 분명히 옳은데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아내가 불만이다.

"저희 부부 역시 아이 교육 때문에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나중엔 '애를 망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다'는 생각에 서로 양보긴 하지만... 대신 이 책에서나마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억지로 해야 하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아무 도움을 못 주는 대신,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홍씨라고 해서 남들보다 훌륭한 아빠는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으로 따지면 책에 소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낙제 아빠다. 하지만 홍씨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 아이들과 있을 때는 아이들 세상의 일원이 될 줄 알았다. '단 1초를 함께 있더라도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해라.' 홍씨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빠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

취재 신동설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